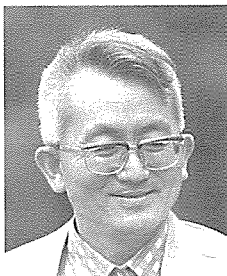


조선에 망원경 등 전한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게스 (陸若漢)

1631년 조선조 인조때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鄭斗源)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게스(陸若漢)로부터 망원경, 서포, 자명종 등을 기증받아 서양문물을 처음 들여왔다. 우리나라에 서양문물을 처음 전한 로드리게스(1561~1633년)는 포르투갈 고이출신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일본어에 능통하여 당시 일본을 방문한 교황청 주교가 지배자이던 풍신수길을 만났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다. 로드리게스는 그후 일본에서 금교령(禁敎令)이 내려지자 마카오로 퇴거했는데 중국서 우리 사신에게 이러한 서양문물을 기증한 2년 후에 사망했다.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온통 서양 것으로 휩싸여 사는 요즘이다. 나라 문을 서양에 지긋이 연 것이 이제 1백30여년--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양 문명에 물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의 일이었다. 생각해 보면 겨우 반세기 만에 우리는 서양의 물결 속을 헤엄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역사 책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양을 알게 된 것은 1631년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정두원(鄭斗源, 1581~?)이 서양 문물을 전해 오면서 부

터의 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때 인조 9년 7월 12일의 「인조실록」(仁祖實錄)을 보면 이렇게 써어 있다.

진주사(陳奏使) 정두원(鄭斗源)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천리경(千里鏡)·서포(西砲)·자명종(自鳴鐘)·염초화(焰硝花)·자목화(紫木花) 등 물품을 바쳤다. 천리경은 천문을 관측하고 백리 밖의 적군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포는 화승(火繩)을 쓰지 않고 돌로 때리면 불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서양 사람 육약한(陸若漢)이 중국에 와서 두원에게 기증한 것이다. 자명종은 매 시간마다 종이 저절로 울고, 염초화는 곧 염초를 굽는 함토(鹹土)이며, 자목화는 곧 색깔이 붉은 목화이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서포를 구해 온 것은 국방에 뜻을 둔 것이니, 정말 가상하다.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라” 했으나, 사간원이 가자(加資)의 명을 거들 것을 청하자 이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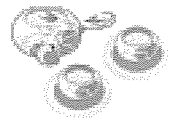
이어서 8월 3일 임금은 정두원을

불러 다시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물었는데, 육약한에 대해 질문하자 정두원은 그가 도를 터득한 사람(得道之人)인 듯하다고 대답했다.

정두원이 중국에서 만나 망원경과 서양식 기계시계(자명종) 등 서양 문물을 처음 얻어온 주인공 육약한은 조앙 로드리게스(Joao Rodrigues, 1561~1633년)라는 포르투갈 선교사이다. 조선에 처음으로 망원경 같은 서양 문물을 전함으로써 육약한 또는 로드리게스라는 그의 이름은 우리 과학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고아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

로드리게스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그는 마테오 리치처럼 중국에서 과학자 겸 선교사로 활동하던 그런 인물이었을까? 그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고아였다. 고아였기 때문에 천주교 고아원에서 자라 1575년에는 인도로, 그리고 1577년에는 일본에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당의 심부름을 하며 자란 로드리게스가 당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던 천주교 선교단체인 예수회에 가입한 것은 1580년으로 밝혀져 있다. 일본에 온 이후 그는 열심히 일본말을 익혀 당대에는 일본어를 가장 잘하는 외국인이었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도착한 것은 1543년의 일--그때부터 열심히 그들은 일본에 포교도 하고 장사도 벌이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당연히 일본에는 이미 교육기관도 만들고, 선교와 함께 그 수단으로 포르투갈식 병원도 세웠다. 로드리게스는 그 학교 콜레지오(colegio)에서 라틴어, 천문학, 신학 등을 공부하게 되



었던 것이다. 로드리게스의 일본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1581년 교황의 사절로서 발리니아노 주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의 통역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그 해에 발리니아노가 당시 일본의 지배자 풍신수길(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을 만났을 때 통역을 바로 로드리게스가 맡았던 것이다. 1592년 임진란을 일으키기 11년 전의 일이었다.

일어 능통...풍신수길 통역도

그리고 그는 1594년 카톨릭의 사제(司祭)가 되기 위해 마카오에 가서 자격을 얻고 1596년 신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일본에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자리는 점점 위협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기독교의 전파를 일본인들이 점차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 그가 돌아온 이듬해 1597년 2월 5일에는 장기(長崎=나가사키)에서 26명의 카톨릭 교도가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1614년 1월 27일에는 금교령(禁敎令)을 내려, 선교사들의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비하여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이미 장기에 모여, 모두 1백15명이 마카오로 향했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일본에서 추방당하여 마카오로 가게 되었다.

대단히 활동적이던 선교사 로드리게스는 중국에서도 그의 선교활동에 열성이었다. 중국인과의 열심히 사귀었고, 그런 가운데 천주교도였던 손원화(孫元化)를 돕기 위해 산둥성(山東省)의 등주(登州)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손원화가 그 곳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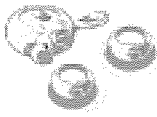
(明나라)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던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해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 사신들이 보통 때와 달리 바다 길을 택하여 등주를 통과하게 되었다. 보통은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 의주를 거쳐 만주로 들어간 조선 사절단은 육로(陸路)로 북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침 만주족의 명나라 침략으로 전쟁이 계속되던 중이어서 정두원 등 사신 일행은 해로(海路)를 택하여 중국을 왕복했던 것이다. 정두원이 로드리게스를 만나게 된 것은 이런 우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정두원에게 어떤 종류의 서양 물품을 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책마다 다른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인조실록」 기록으로는 몇가지 물건 밖에 없는 것 같지만, 로드리게스는 서양 과학을 소개한 책도 여러 가지 주었음이 밝혀져 있다. 18세기의 실학자 이익(李瀼, 1681~1763년)은 그의 백과사전 같은 문집 「성호사설」(星湖僿說)에다가 ‘육약한’이란 항목을 두어 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육약한(로드리게스)은 당시 나이가 97세로 신선처럼 생겼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포 기술이 뛰어나 중국을 도왔는데, 그가 정두원에게 준 것들은 「치력연기」(治曆緣起) 1권, 「천문략」(天文略) 1권, 「원경설」(遠鏡說) 1권, 「직방외기」(職方外記) 1권, 「신위대경소」(神威大鏡疏) 1권, 천리경(千里鏡), 자명종(自鳴鐘), 조총(鳥銃), 약통(藥筒)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경(遠鏡=천리경)이란 백리 밖의 적진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조총은 화승을 쓰지 않고도

발화되며 우리 화포가 2발 쏘는 동안이면 4~5발을 쏠 수 있다. 또 홍이포(紅夷砲)는 포탄 크기가 말(斗)만 한데, 80리를 쏘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육약한은 이마두(利瑪竇=마테오 리치)와 같이 온 사람으로 그가 기증한 것들은 없애서는 안될 것들이지만, 자기가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은 「천문략」, 「직방외기」 등 몇가지 책이고 그 나머지는 남아 있지 않다고 쓰고 있다.

우리 사신 정두원과 만나

정두원은 함께 중국에 갔던 역관(譯官) 이영후(李榮後)에게 그로부터 천문학을 배우오게 했고, 이영후는 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하여 등근 지구 위에서 중국이 과연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냐는 등의 질문도 던진 기록이 보인다. 이에 대해 로드리게스는 땅덩이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꼭 중앙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國國可以爲中)이라 주장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분명한 설명은 그후 조선 지식층이 중국중심적인 사고(中華思想)에서 벗어나는데 힘이 되었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름 육약한은 우리 역사책 여기 저기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존재이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로드리게스에 대해 거의 연구된 일도, 알려진 것도 없다. 그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일본에서 연구 논문이 여럿 나왔고, 최근에는 그의 일생을 추적한 한편의 책이 나오기도 했다. 마이클 쿠퍼라는 예수회 신부가 1974년 영어로 썼던 그의 전기는 1991년 일본



어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제목이 「통역 로드리게스--일본과 중국에서의 초기 예수회 선교사」로 되어 있다. 일본어로 번역한 제목은 더 흥미롭게 「통역 로드리게스--남만(南蠻) 모험자와 대담협시대의 일본과 중국」이라 되어 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예수회 선교사인데, 이 책 제일 끝 부분에 아주 조금 그가 조선 왕실에 전해준 서양 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논평이 재미있다. '56년을 지낸 일본과 중국의 연대기(年代記)에 그의 이름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지만, 한번 방문한 일도 없는 이 나라(한국)에는 이국정서가 담긴 물품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역설적인 일이다. 그의 이름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리 유명하진 않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기타 유럽 나라 선교사들이 대거 밀려와 선교와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이 전혀 희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어느 모로 보거나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더구나 과학자도 아니었다. 그런대로 그가 남긴 학술적 업적을 들자면, 그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일본어 배우는 책을 훌륭하게 쓴 일이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 마카오에서는 「일본 소문전」(日本小文典)이란 책을 남겼고, 죽을 때 까지 「일본교회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던 그의 이름이 엉뚱하게도 한국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다.

지금도 여기 저기 우리 역사 책에

는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국적을 이탈리아라고 잘못 적은 책도 있고, 또 그를 만나 천문학에 관해 편지를 교환한 역관 이름이 이영후(李榮後) 또는 이영준(李榮俊)이라고도 나와 있다. 아직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이다.

우리나라 학자로 가장 이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해 밝힌 사람은 꼭 10년 전에 작고한 동국대의 이용범(李龍範) 교수였다. 원래 만주 등 중국의 변두리 지역 역사 연구로 시작했던 이교수는 후에는 과학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과학사 연구업적을 남겼다. 1989년 1월 68세에 작고했는데, 4개월 전인 1988년 9월에 낸 그의 책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는 그의 저서 가운데도 아주 특이하다. 왜냐하면 그의 전공도 그렇고 하여 그의 논문은 그야말로 한자 투성이인데, 이 책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두 한글이다. 아마 그의 제자들의 충고로 한글판으로 책을 낸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책 속에 30페이지에 걸쳐 '육약한과 이영후'라는 작은 제목의 글이 들어있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영후가 육약한에게 보낸 천문학에 관한 질문 내용,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로드리게스의 대답을 모두 번역하고,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로드리게스나 이영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책에는 로드리게스의 출생년이 1561년이었으니, 그 때 겨우 70세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두원 등이 그의 나이를 97세라 하여 뒷날 이익 같은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 그

렇게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홍이섭교수의 「조선과학사」에는 로드리게스를 이탈리아 신부라 했지만, 사실은 포르투갈 출신인 것도 밝혀 놓고 있다. 잘 살펴 보면 이용범교수는 로드리게스에 관한 일본 학자 논문을 한편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교수는 로드리게스가 당시 조선 사신과 이영후를 만나서 별로 성실하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어쩌면 조선 사람들에게 더 권위있게 보이기 위해 나이도 높여 말했는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상까지 동원하여 로드리게스와 이영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막상 이영후의 이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름은 이영준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고, 로드리게스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필자가 조사한 정도로 우선 로드리게스에 대해서는 훨씬 잘 알 수 있게 된 셈이지만, 앞으로 이영후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로드리게스가 이영준인지 이영후인지를 만난지 2년 뒤인 1633년 8월 1일 그는 광둥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마카오의 '성바로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마카오시 한가운데 언덕에 서 있는 이 성당은 지금은 다 불타 버리고, 그 앞 벽만이 남아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마카오에서 '성바로성당'을 관광하는 한국인 누구도 1631년의 로드리게스(육약한)를 연상하지는 못할 것 같다. 혹시 그 옆의 다른 공원에 있는 김대건신부 동상을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67